



농림축산식품부

동 정

정부혁신
보다 나은



2019년 9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김수일(044-201-1791), 서기관 강승규(1794)/제공일: 9월 10일(총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장관, 낙과 배 일손돕기 현장방문

= 추석 전 신속한 손해평가, 가공용 조기수매, 복구인력 총동원 =

-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(화) 제13호 태풍 '링링'으로 낙과피해가 발생한 천안 성환읍 소재 과수원의 떨어진 배를 수거, 정리하는 일손돕기 현장을 방문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, 지자체 등 피해복구 지원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복구지원을 약속하였다.
- 또한,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강우가 계속되고 있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피해복구가 지연되어 2차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면서,
- 농가에서는 떨어진 과일 수거 및 보관, 벼·채소류에 대한 병해충 긴급 방제 등의 조치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낙과 피해 등에 대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및 낙과피해 과실 수매지원(6천톤), 방제약제 할인(최대 50%) 공급, 일손돕기 인력 총동원 등으로
- 추석 전 농가의 응급복구 노력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.

< 자막방송 등 안내 협조요청 문구(안) >

농식품부, 태풍 피해 낙과 조기 수거,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등 당부